

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텐션 학교의 2021/22 학기는 8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새 학기를 준비로 새로운 선생님과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정상수업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는 준비를 해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텐션 학교도 개강했을 때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대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새 학개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영어캠프 마지막 주는 일정 취소를 했습니다. 캠프 도중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일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캠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6주 프로그램 중 5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았지만,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때 영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ELL 교사로서 학생들의 필요를 보면서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연구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밖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직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자기 나이의 2-3살이나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어느 학생의 어려움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감동이었고, 밝은 모습으로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로부터 도전도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학생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 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더 준비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더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선나 선교사는 이번 주부터 신규 교사 및 전 직원(교사) 오리엔테이션(8월 10일-13일)에서 ELL 학생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4번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텐션 학교의 69%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ELL 학습법이나 ELL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ELL 학생들을 잘 대변하면서 그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선생님들과 함께 모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 월 기도 제목

- 하진이의 두피 피부염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 학기 준비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진이와 다애가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교직원, 학생과 가정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진이 두피 피부염

정성구, 윤정은, 이진영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하진이의 피부염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시작했습니다. 염증은 사라졌지만, 아직 탈모는 회복이 안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피부염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MK 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부모로서, MK 사역자로 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장 수여

하진이는 학교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되어서 학기가 어긋나서 초등학교 기간이 지났지만 초등학교 졸업식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진이의 아쉬움이 큰 것 같아 아빠와 엄마가 대신 졸업장을 만들어서 수여식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주할 집으로 이사

지난 7월 31일에 학교와 가까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예비해 두셨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1주일 전에 갑자기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는데, 다시 가져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당황했고 아이들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집주인에게 발생했던 문제가 풀리면서 저희도 계획했던 대로 계약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선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집을 찾고 이사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산의 풍경

처음 알마티에 도착해서도,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도, 그리고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에서도, 텐산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우와~" 하게 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산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천산을 가 보았습니다. 40도가 넘는 이 더위에도 산 정상 부분에는 눈이 아직 남아 있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보며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대하심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